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14절

Tag: 행복, 만족 >Happiness & Satisfaction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4:12-14)

기뻐하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함에 더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 지향적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 지향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지향하는 것, 만족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려니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셈이 된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며, 나약하며,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싸우고, 변민하며, 방황하기도 하고, 멍때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행복을 향하여, 만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이고, 어떤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버티는 것도 마지막에 얻을 만족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도 순간의 판단 실수로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빨리 포기해야 할 것인데도 고집이나 무지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해야 한다.

주여, 이미 주께서 포기하라 하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명으로 여기며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나요?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겸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지라도, 그래서 국지적으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물론 이런 표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국지적 실패란 결국 개인적 실패, 또는 한정된 시공간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런 실패는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회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다.

시계는 어김없이 돌고 돌아 세상은 바뀌고, 나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뀐다.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형편과 처지도 다 바뀐다. 오직 변함없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다. 그분의 마음은 변치 않으시고, 그

사랑 또한 변함 없으신 유일하신 분. 그 능력도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 또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심지어는 환난을 당했더라도, 힘겨운 일을 당했더라도, 당장에 죽을 것 같을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셨다.

이 또한 지나간다.

요즘에 가게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온 국민이 지갑을 닫고 살기 때문이다.

한창 스터디 카페가 유행일 때 이것이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카페 손님 가운데 어떤분은 이 사업이 잘 되는가 싶어 두군데나 열었다. 당시에는 공무원시험이 유행이었다.

(공시생, 재수생, 편입생, 경시생, 임용생, 소방공생, 부서관생 등으로 노량진이 와글와글.)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고 싶어 안달이 나던 때다. 집에서 공부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많은 젊은이들이 스터디 카페를 즐겨 찾았다. 그러나 공급과잉이 빛은 사태가 발생.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시험 인기가 시들해지고, (2011년 93.3대1, 2022년 29.2대1)

그러자 스터디 카페 매출이 급락해서 급기야 2년여 버티다 매물로 내 놓았으나 팔리지 않자 스트레스성 복통이 도져서 죽을거 같아서 혈값에 매도 하게 됨. 당사자는 거의 지옥을 경험한 꼴.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자에게 쓰리고 아픈 말씀이다.

12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연단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연단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여긴다. 사실 모든 연단은 고통스럽다. 암투병하는 자들도 온 식구가 지옥을 경험한다. 각종 빛더미에 깔린 사람, 갑질에 시달리는 사람,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 식구들을 부양하느라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 등.(5년 노량진층, 어머니 식당수발 하느라 병언어...)

정신차리지 아니하면 자살 직전까지 간다.

그러나 냉철하게 정말 냉철하게 따지면, 물론 시대적 요인도 있었지만(공시생 줄어듦, 우수죽순 같은 스터디 카페, 경기침체 등) 두 군데나 운영하는데 따른 무리한 업무, 매출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큰 돈을 잃게 되리라는 불안감 등으로 오랫동안 시달림.

더 냉철하게 따진다면, 업종과 업무를 단순하게 여기고 철저히 준비하지 못함 / 돈 많이 벌 생각에 무리한 투자 / 아무리 단순 노동이지만(청소, 정돈)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이다 보니 세심한 고객응대가 가장 핵심적인 업무임. / 결국 포기상태에서 매각하려고 하니 메리트가 떨어짐, 병까지 도져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혈값에 매도.

본인에게는 황당한 일이지만, 세상 이치로 보면 그럴 수 있는 일.

-여러가지 악재를 감당해 낼 만한 힘이 없어서 결국 포기하게 됨.

-하나님은 대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어떨 때는 연단하려는 불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심.

그러므로 이번 만큼은 내가 불 시험을 치르는구나 싶으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꼼꼼하게 계산도 하고, 어디서 잘못되었는 가 바둑 복기하듯 되짚어 보기도 해야 한다.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말씀은 12절 말씀과 맥락이 많이 다르다.

심지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신다.

이런 상황은 자신이 즐거워서 어려운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암투병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살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 친구가 있었다.

항암으로 온 몸이 만신창이 되어 걸기도 힘들 지경이었을 때 등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암담하고 힘들고 서럽기 한량없고,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았지만, 점점 힘을 얻어 작은 동산은 이제 싱겨워서 점점 높은 산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등산이 이제는 재미가 붙어서 이 친구는 등산하는 재미에 빠져 산다. 몸 튼튼, 마음 튼튼, 영혼 튼튼이다. 이제 당당하고 즐겁고 고난 앞에 용감하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겨낼 힘이 있고, 도전할 용기가 있다. 오히려 어려운 산행일수록 이겨낼 상상으로 즐겁다. 즉,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이상하게 빠져드는 논리...)

-쓴 커피를 마시면서 야~ 고소하다. 향기 죽인다.

-쓴 쏘주 마시면서 카~ 달다. 이것이 인생이여어.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

구원과 관계된 일, 교회와 관계된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 전도와 관계된 일 이라면 보람된 일이다.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남들 하지 않는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전도 대상자의 영혼이 염려되기도 한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기도 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마음도 신경도 쓰인다.

더 행복한 세상, 더 바람직한 세상, 더 안전한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이다.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4:12-14)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즐거운가? 아니다. 치욕은 치욕이다.

그런데 복 있는 치욕이다. 댓가가 확실하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치욕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치욕의 반대말은 영광이다. (14절이 이 두가지를 다루고 있다.)

영광스러움은 모든 복 위에 뛰어난 복이다.

영광에 관한 한 기독교인과 비 기독교인의 차이가 있다.

기독교인의 영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는 자에게만 영광이 주어진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
해야 마땅하다.

특별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이다.
그러나 특별한 순간,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므로,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람을 특별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는 왜 전도하는가? 그것은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한다.
설령 치욕을 당하더라도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감싸 주신다.
결국 치욕은 치욕이 아닌 셈이 된다.

치욕 때문에 상처를 입어야 할까, 치욕을 당해도 모른척해야 할까?
모른척 하는 것이 한 수 위다.
치욕을 주는 것이 치욕스러운 것이다.
나도 치욕을 당하지 않고, 치욕을 주려는 자의 치욕도 줄여주는 것도 모른척
하는 것이다. 치욕에 응대하는 지혜는 당당하고 뻔뻔한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 모두 이 영광에 동참하자. 아멘.

<기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
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소망으로 받아들이겠습니
다.

심지어는 환난을 당했더라도, 힘겨운 일을 당했더라도, 당장에 죽을 것 같을지
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
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더 행복한 가정, 더 바람직한 세상, 더 안전한 세상, 더 아름다운 세
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
망합니다. 이 영광 때문에 치욕이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아멘.